

唐代 外民의 內徙策

—특히 高句麗遺民의 徙民策을 中心으로—

金 文 經*

- I. 序 言
- II. 遺民의 內徙
- III. 內徙民의 措處
- IV. 結 言

I. 序 言

唐이 취한 降附 塞外民에 대한 조치는 흔히들 「華夷如一」한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 증거로 곧잘 『資治通鑑』에 기재된 唐 太宗이 말한 「自古皆貴中華 賤夷狄 朕獨愛如一 故其種落皆依朕如父母¹⁾」라고 한 말을 제시한다. 中國의 歷代王朝가 周邊의 異民族을 항상 東夷 南蠻 西戎 北狄²⁾으로 칭하여 이른바 「貴中華而賤夷狄」한 것과 비교한다면 太宗의 華夷觀은 크게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唐代에 와서 華夷觀이 달라진 理由를 或者是 五胡·南北朝時代를 거쳐 상당기간 동안 華夷는 雜居混合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거기에다 唐朝는 北朝系統의 胡化된 漢人 出身³⁾이었기 때문에 華夷觀念은 펍 희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唐의 降附 塞外民에 대한 徙民策은 원래 명백한 정책이 없었던 것 같다. 시대의 推移와 상대 民族에 따라 엄연히 다르고, 國內外 情勢에 따라 變動이 심했다. 그러나 內徙된 降附民들은 置州編戶하여 華化·農耕化·兵力化해 갔던 사실은 분명하다. 漢代 이래로 시행되어온 일반적인 조치이다.⁴⁾

그런데 降附 內徙民이 華化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곳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農耕生活을 영위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徙民들에게 「計口受田」이 선행되어야 한다. 「編戶」

* 文理科大學 史學科 教授

1) 『資治通鑑』 卷 198, 貞觀 21年 5月條

2) 『禮記』 卷 12, 「王制 東方曰夷 被髮文身 南方曰蠻 雕題交趾 西方曰戎 被髮衣皮 北方曰狄 衣羽 毛穴居」

3) 陳寅恪, 李唐氏族之推測, 陳寅恪先生論文集,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71, 臺北

4) 『晉書』 卷 97, 「北狄 匈奴傳 前漢末 匈奴大亂……携率部落 入臣於漢 漢嘉其意 割并州北界以安之……其部落隨所居 郡縣 使宰牧之【與編戶大同而不輸貢賦】」

는 「計口受田」과 같은 뜻을 내포한다고 보아도 좋다. 五胡十六國時代나 北魏時代의 전기에는 이 「計口受田」이 잘 시행되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근자의 연구에 의하면 徙民措處 그 자체는 결코 經濟的 財政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敵對하는 征服地의 豪族勢力을 파괴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나아가서 降附民에 대한 直接的인 支配를 目的으로 하였다고 보고 있다.⁵⁾ 高句麗 遺民에 대한 唐의 政策 또한 遺民의 安置에 그 目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強幹弱枝와 直接支配에 그 主眼點을 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富強한 高句麗 유민들 만이 여러 차례나 遷徙와 還置를 거듭당한 사실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降附民을 強制로 移住시켰던 이 物理的 현상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시기, 해당국가의 政治勢力과 支配·被支配社會의 특수성을 전제로 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高句麗 遺民에 대한 唐의 徙民策도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唐이 의도한 바 內徙의 目的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遺民에 대한 관계자료가 매우 적은데다가 그것마저 연대기적 성격이 강하므로 徙民措處의 전모를 밝히기는 힘들다. 더우기 遺民들의 唐 內地生活이나 社會的 活動 등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本稿에서는 高句麗 遺民에 대한 徙民策을 唐의 屬地管理法의 일환으로 보고 唐이 이들에 대해 취한 措處가 他民族과는 어떻게 다르며 또 다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밝히는 데만 그친다. 그리고 그 범위도 時間的으로는 唐初에서 開元末까지로 하고 地域的으로는 中國 內陸에 遷徙된 유민에만 한하며 그 밖의 地域에 移置된 유민에 관해서는 論外로 한다.

Ⅱ. 遺民의 內徙

唐이 塞外 降附民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 것은 太宗 때에 비롯된다. 貞觀 3年(629) 突厥의 突利可汗과 그 다음 해 頡利可汗이 降附해 오자 비로소 太宗은 朝廷諸臣과 그들의 安置方法을 상론하였다. 그 내용인 즉,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分其種落 俘之河南兗豫之地 散居州縣各使耕織 百萬胡虜可得化爲百姓 則中國有加戶之利 塞北可常空矣

둘째,

聞聲聖人之道 無所不通 古先哲王 有教無類 突厥餘魂 以命歸我 我援護之 收居內池 稟我指摩 教以禮法 數年之後 盡爲農民 選其酋長 遺居宿衛 畏威懷德 何患之有

5) 谷川道雄, 北魏研究의 方法と 課題,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32號, 1964 參考. 掘敏一, 均田割の 研究, 岩波書店, 1975, p. 108

세 제,

即宜遣還河北 居故土 匈奴人面獸心 非我族類 強必寇盜 弱則卑服 不顧恩義 其天性也…… 晉代有魏時胡落分居近郡 平吳已後…… 不用欽等言 數年之後 遂傾漣洛⁶⁾

등이 곧 그것이다. 첫째의 것은 降附民을 內徙하여 그들의 세를 弱化시키는 한편, 이들을 定着營農케 함으로써 漢人自身들의 부강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둘째는 漢化策을 앞세운 매우 온건한 점령정책이라 하겠다. 「置府州」하여 그들의 酋長으로 하여금 그들을 지배통치하게 한 것이다. 세째의 것은 西晉時代의 사례를 들면서까지 塞外 降附民의 內徙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힘에 의한 강경책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당시의 秘書監 魏徵의 주장이고 보면, 그 뒤의 外民政策 수립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당시 「朝士」의 대다수가 지지했다고 하는 첫번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中書丞 溫彥博이 건의한 두번째 안이 채택된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太宗의 降附 塞外民에 대한 기본태도를 어렵곳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舊唐書』卷194, 突厥傳에

太宗遂用其計 於朔方之地 自幽州至靈州置順祐化長四州都督府 又分頡利之地六州 左置定襄都督府 右置雲中都督府 以統其部衆 其酋首至者皆拜爲將軍 中郎將等官 布列朝廷 五品以上百餘人 因而入居長安者數千家

라고 한 것은, 朝士들과의 朝議를 거친 뒤에 취해진 徙民策이다.

이러한 시책은 곧 高句麗 멸망 후의 對高句麗 遺民政策에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總章元年(668) 唐은 高句麗를 멸망시키자

高麗國舊分爲五部 有城百七十六 戶六十九萬七千 乃分其地置都督府九 州四十二 縣一百 又置安東都護府以統之 擢其舊渠有功者授都督 刺史及縣令 與華人參理百姓 乃遣左武衛將軍薛仁貴總兵鎮之⁷⁾

라 하고 있다. 즉 高句麗 구영토를 176城 69萬 7千餘戶로 나누어 9都督府 42州 100縣으로 하고, 平壤에다 安東都護府를 두어 薛仁貴로 하여금 兵 2萬⁸⁾으로 이를 鎮撫케 하였다. 그리고 府州縣에는 都督 刺史 縣令을 두어, 長으로는 高句麗民을 임명하고 唐官과 함께 이들의 統治에 임하도록 하였다. 唐은 國內의 行政制度를 服屬地의 異民族 통치에도 적용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高句麗 分置의 안은 李勣과 泉男生이 商量하여 입안하였다고 한다.⁹⁾ 突厥의 그것

6) 『舊唐書』卷 194, 列傳 第 144, 突厥 上

7) 同書 卷 199, 列傳 149, 高麗

『三國史記』卷 第 22, 高句麗本紀 10,

『新唐書』卷 202 列傳 第 145 高麗傳

『資治通鑑』卷 201 唐紀 17

8) 『舊唐書』卷 83, 列傳 第 83, 薛仁貴傳「高麗既降 詔仁貴率兵二萬人 與劉仁軌於平壤留守 仍授右威衛大將軍 封平陽郡公 兼檢校安東都護」

9) 池內宏,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滿鮮歷史地理研究報告 第 16, 1941, p. 210

과 비교하면 철저한 直接支配를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舊 高句麗 지배자들에 대한 조치도,

十一月拔平壤城 虜高藏男建等 十二月至京師 獸俘於舍元宮 詔以高藏政不由己 授司平太常伯 男產先降授
司宰少鄉 男建配流黔州 男生以鄉導有功 授右衛大將軍 封汴國公 特進如故¹⁰⁾

라 하였다. 寶藏王과 泉氏一家를 長安으로 移置하여 授官케 하고, 對唐戰爭을 끝까지 지휘하였던 泉男建은 黔州(今四川省 彭水縣)로 配流하였다. 20數年에 걸친 對高句麗 戰爭의 사후 처리라는 점에서 본다면 관대한 조치임에는 틀림없겠으나, 역시 突厥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것 또한 엄격한 일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高句麗遺民이 직접 行政에 참여하고 이를 唐官이 감독하는 이른바 羈縻統治는 곧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遺民들의 離反과 抗唐戰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 第10 寶藏王條에 의하면

(總章)二年(669) 己巳二月 王之庶子安勝 率四千戶投新羅¹¹⁾

라고 한 사태라든가, 『資治通鑑』卷201, 總章 2年(669) 4月條의 「高麗之民 多離叛者」라고 한 것 등은 당시의 소식을 잘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高句麗의 抗唐戰爭에 협력해 온 粟末·白山의 두 靺鞨 세력도 상존하고 있었으며, 新羅 역시 國土팽창의 일환으로 唐 세력을 구축하고 있을 때였다. 이와 같은 사태추이를 감안한다면 唐官이 직접 統理하는 羈縻政策의 수행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總章 2年(669) 2月이나 3月경에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련의 反唐투쟁에 대하여 李丙燾 박사는 劍(鉞)牟岑 등의 第1次 반란으로 보고 있다.¹²⁾ 그러나 그것을 굳이 牟岑의 1次反亂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당시 高句麗民의 뿌리 깊은 反唐感情으로서 抗唐활동이 舊高句麗 영토의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高句麗 유민의 離反과 抗爭에 대한 唐의 조치는 즉각 나타났다. 그것은 土着기반을 가진 反唐저항 세력을 唐 內陸으로 移置하는 徙民措置로 나타났다. 일종의 報復措處임에 틀림이 없다. 앞에서 인용한 『資治通鑑』卷201에

高麗之民 多離叛者 敕徙高麗戶三(二)萬八千二百於江淮之南 及山南京西諸州空曠之地 留其貧弱者使守安東

이라고 한 것이나 『舊唐書』卷5 高宗本紀5, 總章 2年(669) 5月 庚子條에도

10) 『舊唐書』卷 199 上, 列傳 第 149 上 高麗

『三國史記』卷 第 22 高句麗本紀 第 10, 寶藏王條

『新唐書』卷220, 列傳 第 145, 高麗

11) 池內 宏, 高句麗滅亡後의 遺民의 叛亂及 び 唐と 新羅との 關係, 滿鮮地理歷史報告 第 11 1929, p. 66에 是 遺民 4千戶를 거느리고 新羅로 투항한 이는 安勝이 아니고 그의 部下 延武였다고 보고 있음

12) 李丙燾, 高句麗의 一部 遺民에 대한 唐의 抽戶政策, 震檀學報, 25輯, 震檀學會, 서울, 1964, p. 9

移高麗戶二萬八千二百 車一千八十乘 牛三千三百頭 馬二千九百匹 駝六十頭 將入內地 萊營二州般次發道量配於江淮以南及山南并涼(京)以西諸州空閑處安置

라고 한 것이 곧 그것이다. 유민들을 營州와 萊州에 모아 陸海兩路를 통하여 江淮이남과 山南道 및 并州 涼州 등 서쪽의 諸州로 內徙하였다. 이 당시의 高句麗 戶數는 69萬7千餘戶였던 만큼 2萬8千2百餘戶의 內徙는 전체民戶의 1/24에 해당되는 엄청난 수다. 아마도 陸送되 高句麗人들은 蘇子河 流域에서의 民戶들 즉, 新城 遼城方面의 거주자로 추측되며, 海送된 유민들은 오늘날의 북한과 滿洲 동쪽 즉, 平壤城과 國內城을 중심으로 한 유민들로 생각된다.¹³⁾

이렇게 보면 高句麗 옛領土의 전역에서 強制收合된 豪民들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이전에도 이미 많은 수의 民戶가 強制內徙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¹⁴⁾이 때 高句麗 유민들에게 던져준 社會的 不安은 엄청난 것으로 짐작된다. 強制內徙의 결과는 곧 큰 反亂으로 나타났다. 『三國史記』卷6, 新羅本記 第6, 文武王條에

十年三月(670) 沙浪薛烏儒 與高句麗太□□延武 各率精兵一萬 度鴨綠江 至屋骨□□ 靺鞨兵先至皆敦壞待之 夏四月四日對戰 我兵大克之 斬獲不可勝計 唐兵繼至 我兵退保白城 六月 高句麗水臨城人牟岑大兄收合殘民 自窮牟城 至溟江南 殺唐官人及僧法安等 向新羅行 至西海史治島 見高句麗大臣淵淨士之子安勝 迎致漢城中 奉以爲君 遣小兄多式等表告曰 興滅國繼絕世 天下之公義也 惟大國是望 我國先王以失道見滅 今臣等得國貴族安勝 奉以爲君 願作藩屏 永世盡忠 王處之國西金馬渚

라고 한 것으로 보면, 反亂의 규모는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즉 3月中旬에 新羅將帥 薛烏儒와 高句麗遺將延武가 兵 2萬을 거느리고 일으켰던 反亂과, 6월에 일어났던 것으로 기록된 鉗牟岑의 反亂이 곧 그것이다. 池內 宏氏는 이 기록 가운데서 「度鴨綠江」이라 한 것은 「溟江(大同江)」의 잘못으로 보고, 「屋骨」과 「皆敦壞」은 平壤 부근의 地名이며 「白城」은 溟江 이남에 위치하였던 성으로 보고 있다.¹⁵⁾ 긍정할 만한 논지다. 牟岑의 反亂에 대한 기록으로 좀더 상세한 것은 『新唐書』卷3 高宗本記, 咸亨 元年(670) 4月條에

咸亨元年四月癸卯 高麗酋長鉗牟岑叛寇邊 左監門衛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總管 右領軍衛大將軍李謹行爲燕山道行軍總管 以伐之

라 한 내용이다. 이에 의하면 反亂은 6월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4월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資治通鑑』¹⁶⁾에서도 마찬가지다. 4월과 6월로 되어 있는 이들 기록의 옳고 그름은

13) 日野開三郎, 高句麗國遺民反唐分子의處置, 史淵 第 64輯, 九州史學會, 1955, p. 25

14) 『册府元龜』卷 117, 帝王部 親征門 貞觀 19年條

15) 池內 宏, 前掲書 p. 67

16) 『資治通鑑』卷 201, 唐紀, 17 咸亨 元年 4月條 「高麗酋長鉗牟岑反 立高麗外孫安舜爲主 以左監門衛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總管 癸兵討之 安舜殺鉗牟岑 奔新羅」
『新唐書』卷 220, 列傳 第 145 高麗傳 「大長鉗牟岑率衆反 立藏外孫安舜爲王 詔高侃東州道 李謹行燕山道 並爲行軍總管討之 遣可平太常伯楊紘納亡余 舜殺鉗牟岑走新羅」

기실 新羅本紀의 기록내용을 좀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회답은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牟岑이 殘民을 收合하고 그 다음 북쪽의 窮牟城에서 溟江 이남으로 후퇴하여, 唐官과 僧 法安을 殺害한 뒤 마지막으로 安勝을 「迎致漢城中」한 일련의 사건에는 적어도 1~2개월의 시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收合殘民」은 江北에서 일어났던 對敵交戰의 결과일 것이니, 安勝의 漢城迎致 보다 앞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보면 反亂이 일어났던 시기는 『新唐書』와 『通鑑』의 기록이 옳다고 하겠다.¹⁷⁾

일련의 抗唐反亂은 安東都護府의 수비미약의 틈을 타서 일어났을 것이다. 아마도 2萬의 鎮守兵은 遺民들의 內徙와 때를 같이 하여 大部分 철수 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왜냐하면 安東都護 薛仁貴는 咸亨 元年(670) 4月 吐蕃이 入寇하자 邏娑道行軍大總管으로 任命되었고,¹⁸⁾ 牟岑의 反亂당시 平壤에도 있지 않았다. 新·舊唐書의 傳에 보면 「檢校安東都護 移治新城」이라고 하였으니, 平壤 都護인 그는 新城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牟岑에서 시작된 일련의 反亂은 高倨 李謹行 楊昉 등에 의하여 진압된다.¹⁹⁾ 그러나 高句麗 유민들의 抗唐鬪爭은 그 뒤에는 계속되었다. 아래의 資料에 의하면,

倨徙都護府治遼東州 破叛兵於安市 又敗之泉山 俘新羅援兵二千 李謹行破之于發盧河再戰 俘馘萬計 於是平壤殘不能軍 相率奔新羅 凡四年乃平²⁰⁾

이라 전하고 있다. 高倨와 李謹行 등이 高句麗의 叛亂軍을 安市城과 泉山 發盧河 등지에서 敗之시켰다고 하는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咸亨 元年(670)에 시작된 高句麗 유민들의 抗唐鬪爭은 同 4年(673) 閏 5월에 가서야 發盧河(瓠盧河) 전투를 끝으로 일단락 된 셈이다.²¹⁾

그러나 唐은 新羅와의 전면 대결로 돌입한다. 이유인 즉 新羅는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高句麗 유민들의 抗唐叛亂을 원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군사개입까지도 감행하였고, 그간 百濟의 故土를 수복해 갔던 까닭이었다. 『資治通鑑』 卷 202 唐記 18에,

上元元年(674) 春二月壬午 以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劉仁軌 爲雞林道大總管 卿尉卿李弼 右領軍大將軍李謹行副之 發兵討新羅 時新羅王法敏 旣納高麗叛衆 又據百濟故地 使人守之 上大怒 詔削法敏官爵 其弟右驍衛員外大將軍閔臨海郡公仁問在京師 立以爲新羅王 使歸國

17) 池內 宏, 前掲書 p. 65

18) 『新唐書』 卷 111, 列傳 第 36, 薛仁貴傳 「咸亨元年 吐蕃入寇 命爲邏娑道行軍大總管 率將軍阿史那道眞 郭待封擊之」 『舊唐書』 卷 83, 列傳 第 33, 薛仁貴傳

19) 同上 卷 220, 列傳 第 145 「高麗傳 詔高倨東州道 李謹行燕山道 並爲行軍 總管討之 遣司平太常伯楊昉綏納亡余 殺鉗牟岑走新羅」

20) 參考『三國史記』 卷 七, 新羅本紀 七 文武王 11年 9月條, 同書, 12年 7月條

21) 『舊唐書』 卷 5, 高宗本紀 5 「閏五月丁卯 燕山道總管李謹行破高麗叛黨於瓠盧河之西 高麗平壤余衆遁入新羅」

이라 하고 있다. 兩國간의 戰爭결과에 관한 唐 新羅 쌍방의 기록은 전혀 다르다. 『資治通鑑』을 비롯한²²⁾ 中國側 史書는 모두 唐이 이 싸움에서 「三戰皆捷」하였다고 되어 있다. 反面 『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記, 文武王 15年(675)條에 의하면, 唐은 水陸兩戰에서 「三戰皆敗」하였다고 했다. 물론 新羅側 기록이 사실에 가깝다. 그 이유는, 이 戰爭 뒤 唐은 곧 半島의 지배를 포기했던 까닭이다. 儀鳳 元年(676) 安東都護府의 遼東移置가 곧 그것이다. 이로써 唐의 東北方 諸民族에 대한 전초기지는 遼東으로 옮겨간 셈이다.

Ⅲ. 內徙民의 措處

服屬民에 대한 唐의 조치는 都護府 또는 都督府를 두어 「置府州」하여 羈縻統治를 시행하였다. 『新唐書』 卷43 地理志 下에 羈縻州 항목을 두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 주고 있다.

唐興……即其部落列置州縣 其大者爲都督府 以其首領爲都督 刺史 皆得世襲……突厥回紇黨項吐谷渾隸關內道者 爲府二十九 州九十 突厥之別部及奚契丹靺鞨降胡高麗隸河北者 爲府十四 州四十六 突厥回紇黨項吐谷渾之別部及龜茲于闐焉耆疏勒河西內屬諸胡 西域十六國隸隴右者 爲府五〇一州百九十八 羌蠻隸劍南者 爲州二百六十一 蠻隸江南者 爲州五十一 隸嶺南者 爲州九十二 又有黨項州二十四 不知其隸屬 大凡府州八百五十六 號爲羈縻云

즉 突厥 回紇을 비롯하여 高句麗 奚 契丹 및 西域諸國과 羌蠻 등지에 羈縻州 856을 두고, 그들의 首領으로 하여금 都督 刺史로 삼고 이들을 統領케 하였다. 그런데 同書의 降附 塞外民에 대한 일부 徙民의 기록을 상세히 살펴보면 東北諸民族의 경우에 있어서는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奚(州9 府1) 契丹 州17 府1) 靺鞨(州3 府3)) 등 제민족은 모두 營州附近에 移置시켜 營州都督에 隸屬시키고 있다. 그 反面 高句麗 유민에 대한 조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江淮之南 山南道 涼州 并州 등 空曠한 땅으로 內徙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분명 反唐感情이 강한 高句麗民을 되도록이면 멀리 故土에서 떨어진 內陸으로 分散移置시키기 위함이었다. 日野開三郎氏는 高句麗民의 內陸分置의 또다른 이유의 하나로 이들이 農耕民이었다는 事實을 예 들고 있다.²³⁾ 상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史料에 의하면 內陸으로 遷徙되는 이유가 반드시 農耕民이기 때문 만은 아닌 것 같다. 즉,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 靺鞨에 보면

其白山部 素附於高麗 因收平壤之後 部衆多入中國

22) 『資治通鑑』 卷 202, 唐紀 18
『册府元龜』 卷 986, 外臣部 31 征討 第 5
『新唐書』 卷 220, 高麗傳
『唐會要』 卷 95

23) 日野開三郎, 前掲書 p. 27 參考 伊瀬仙太郎(邱添生 譯), 唐朝對塞外系內徙民族之基本態度, 大陸雜誌 第 36卷 第 11期 p. 383

이라고 한 것에서나, 同書 卷194의 突厥傳에서도

自結社率之反也 太宗始患之 又上書者多云處突厥於中國 殊謂非便 乃徙於河北 立右武侯大將軍 化州都督……率所部建牙於河北

이라고 한 것들은 모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資料들이다.

唐은 高句麗 유민들의 反亂과 新羅와의 戰爭에서 敗北하자 半島를 포기하고 安東都護府는 東北方의 防衛上 가장 중요한 遼東에다 移置하였다.²⁴⁾ 그리고 이어 669년에 唐 內陸으로 遷徙하였던 高句麗 유민들을 遼東으로 還置시켰다. 이것은 唐이 高句麗 유민에 대한 정책을 크게 변경했다는 뜻이며, 나아가 東北邊 諸民族에 대한 정책의 변환으로 간주된다. 『資治通鑑』 卷 202 儀鳳 2年(677) 2月 丁巳條에

以上部尚書高藏爲遼東州都督 封朝鮮王 遣歸遼東安輯高麗餘衆 高麗先在諸州者 皆遣與藏俱歸……藏至遼東 謀叛 潛與靺鞨通 召還 徙印州而死 散徙人於河南 隴右諸州 貧者留安東城傍

이라 하였다. 그런데 高藏과 함께 遣歸된 「高麗先在諸州者」는 抗唐戰爭 이래 遷徙된 民戶인지 또는 669年 內陸으로 移置된 徙民 約2萬 8千餘戶를 지칭한 것인지는 明白치 않다. 문맥상 후자라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唐 內地에 遷徙된지 8年만에 다시 遼東으로 還置된 셈이다.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는 遼東의 高句麗 유민들을 安輯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唐이 굳이 國王을 앞세워, 그것도 都督과 朝鮮王으로 封하면서 까지 遣歸시킨 이면에는 遼東의 유민문제가 긴박한 사태에 놓여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唐이 半島를 포기한 뒤의 遼東情勢는 安東都護府의 軍事力만으로는 다스리기가 힘들었으리라 보고 보인다. 新羅에 敗北하여 遼東으로 후퇴하였다는 사실은 즉각 遼東의 高句麗 유민들에게 國家復興의 열을 불러 일으켰을 가능성이 짙다. 이리하여 舊 國王과 內徙된 유민을 다시 遼東의 유민사회에 還歸시킴으로써 그 동요를 막으려고 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高藏에게 주어진 職官이며 爵位 또한 상당히 우대하고 있다. 被征服民에 주어졌던 王 郡王이나 都督 刺史 縣令 등이 비단 형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部族만이 차지하는 地位나 勢力 등을 감안하여 주어진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諸民族에 대한 客觀的 평가기준이 되는 셈이다.

唐初 강대한 敵對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突厥에 주어진 爵位는 분명히 郡王 可汗으로 封해졌다.²⁵⁾ 그러다가 이들이 分裂하여 弱體化되고 降付해 오자 이들에게 주어진 爵位는 없고

24) 『資治通鑑』 卷 202, 唐紀 18 「儀鳳元年(676)二月甲戌 徙安東都護府於遼東故城 先是有華人任安東官者 悉罷之」 『册府之龜』 卷 991, 外臣部 36, 備禦 4.

『舊唐書』 高宗本紀, 同書 卷 39 地理志

25) 『舊唐書』 卷 194, 突厥傳 「武德初 數來朝貢 高祖封爲和順郡王」

職官은 거의 都督에만 그치고 있다. 『資治通鑑』卷193에는 太宗이 突利可汗에게 順州都督의 職位를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爾祖啓民挺身奔隨 隨立以爲大可汗 奄有北荒 爾父始畢反爲隨患 天道不容 故使爾今日亂亡如此 我所以不立爾爲可汗者 懲啓民前事故也 今命爾爲都督 亦宜善守中國法 勿相侵掠 非徒欲中國 久安 亦使爾宗族永全也

응징의 의미로 爵位는 내리지 않고 있다. 이리다가 中宗때에 西突厥十姓 중의 하나인 突騎施의 烏質勒可汗이 西突厥 전역을 지배하고 唐과 대립하게 되자 이에 懷德郡王을 봉하였다.²⁶⁾ 이같은 예로 미루어 보아 降附民에게 주어진 爵位 또는 職官은 어떤 표준하에서 이행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回紇의 降付民에 대한 조치 또한 예외는 아니다. 『唐會要』卷94에는,

貞觀二十一年(647)正月九日 以鐵勒回紇等十三部內附 置六都督府…… 七州…… 並各以其酋師爲都督刺史²⁷⁾

라 하여,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貞觀 22年(648)에 降附해 온 契丹 奚의 酋辰에게 각각 松漠都督과 饒樂都督의 職官만을 내렸다가,²⁸⁾ 萬歲通天(696) 營州의 契丹人 李盡忠 孫萬榮이 反亂을 일으켜 營州가 함락된 뒤 開元 5年(717)에 와서야 羈糜州로 復置되면서 松漠郡王 饒樂郡王의 爵位가 내려졌다.²⁹⁾ 職官 爵位의 수여에는 상대 民族과의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高句麗의 舊國王과 內徙民의 遺歸는 이들에 대한 唐의 회유책과, 東北方 諸民族에 대한 政策的 배려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겠다. 高藏이 遼東으로 귀환하던 바로 그때, 安東都護府는 다시 新城으로 移置된다. 이로서 唐은 遼東의 高句麗 유민사회에 최대의 自治權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唐이 都護府를 예전의 高句麗 西北邊의 重鎮이던 新城으로 옮겨, 東西北으로 이어지는 交通과 戰略上的 요충지를 장악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遼東의 高句麗 유민사회와 靺鞨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그 후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唐은 「安東官」을 앞세운 강력한 통치를 청산하고, 高句麗 舊國王을 앞세운 보다 완화된 羈糜통치를 수행할 일련의 조치를 취한 셈이다. 그리고 唐은 용이 주도하게도 親唐派로 생각되는 泉男生을 唐官의 자격으로 파송하여 總督行政을 대행하게 했다. 唐의 王德眞이 撰한 泉男

26) 『册府元龜』卷 964, 「中宗神龍二年(706)二月 封突騎施烏質勒爲懷德郡王」

27) 『舊唐書』卷 195, 列傳 第 145 回紇傳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貞觀二十年……太宗爲置六府七州 府置都督州置刺史 府州皆置長史 司馬已下官主之 以回紇部爲瀚海府 拜其俟利發吐迷度爲德化大將軍兼瀚海都督」

28) 『唐會要』卷 73, 營州都督府 「貞觀二十二年 十一月二十三日 契丹酋長窟哥 奚師可度者 並率其部內屬 以契丹部爲松漠都督府 拜窟哥爲持節十州諸軍事松漠都督府……以奚部置饒樂都督府 拜可度者爲持節六州諸軍事饒樂都督府」

29) 同上 卷 96, 契丹 奚

生の 墓誌에

儀鳳二年(677) 奉勅存撫遼東 改置州縣 求瘼郵隄 襁負如歸 劃野疎疆 夔川知正 以儀鳳四年正月廿九日溝疾 薨於安東府之官舍

라 한 것으로 그 설명이 가능하다.³⁰⁾

高句麗 舊國王과 內徙遺民들의 遼東遣歸는 唐의 東北邊防 정책의 큰 변혁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唐은 遼東遺民의 反唐의 행위와 怨唐감정을 무마하여, 親唐의 羈糜州로 재건하고, 新羅 靺鞨 등 諸民族이 進出을 막으려고 한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唐의 처음計劃과는 전혀 다른 사태가 발생하였다. 『舊唐書』 卷199 高麗傳에

儀鳳中 高宗授高藏開府儀同三司 遼東都督 封朝鮮王 居安東 鎮本蕃爲主 高藏至安東 潛與靺鞨相通謀叛事覺召還 配流邗州 并分徙其人 散向河南 隴右諸州 其貧弱者留在安東城傍

安東에 돌아온 高藏은 靺鞨靺鞨과 相通하여 叛亂을 피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京師로 召還되어 邗州로 流配되었다. 관련자도 河南·隴右諸州로 分徙되고 貧弱者만이 安東城 부근에 留在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철저히 다스려진 것 같다. 『新唐書』 高麗傳에는 『舊唐書』와 같은 내용을 기술한 다음 이어 「舊城往往入新羅 遺人散奔突厥靺鞨 由是高氏君長皆絕」이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遺人散奔」이라든가 「君長皆絕」이란 내용은 사후처리의 잔인성을 시사해주는 것 같다. 日野開三郎氏는 그의 논문에서³¹⁾ 『新·舊唐書』 高麗傳과 『冊府元龜』(卷966 外臣部 繼襲門) 『唐會要』(卷95) 등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君長皆絕」이 아니라, 기실 이뒤 小高句麗國이 건국되었다고 논증하고 있다. 그 내용인즉, 唐은 일차로 垂拱 2年(686) 高藏의 손자 寶元을 遼東으로 歸還시켜 유민들을 통치할 생각이었으나 중지하였다. 그다음 聖曆 元年(698) 安東都護府가 철폐되자 寶元을 다시 安東都督의 자격으로 遼東에 파송하여, 종래 都護府가 수행하였던 高句麗人의 통치권을 계승시키고자 했으나 이것 또한 실패하였다. 끝으로 聖曆2年(699) 高藏의 아들 德武를 安東都督으로 부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日野氏는 德武의 都督취임을 小高句麗國의 建國으로 주장하고 있다. 금방 수증가지 않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앞으로의 연구에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다.

高藏의 謀叛사건으로 遼東유민의 일부는 新羅 또는 突厥 靺鞨로 散奔되었고, 일부 豪民들은 다시 河南·隴右道의 諸州로 還徙되었다. 그런데 內徙된 이들 유민들에 관한 기록은 한데에 그치고 있어, 內陸으로 徙置된 뒤의 이들 생활이 어떠하였던가 하는 문제들은 밝히기가 힘들다. 『舊唐書』 卷38 志 第18 地理1 靈州大都督府條에

30) 日野開三郎, 前掲書 p. 35 參考 盧泰敦, 高句麗遺民史研究, 韓祐尙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서울, 1981, p. 83

31) 日野開三郎, 小高句麗의 建國, 史淵 第 72輯, 九州史學會, 1957, p. 14.

(貞觀)二十年(646) 鐵勒歸附 於州界置臯蘭 高麗 祁連三州 並屬靈州都督府 永徽元年(650)廢臯蘭等三州 調露元年(679) 又置魯麗塞含依契等六州 總爲六胡州

라고 한 것에서 高麗州와 麗州³²⁾의 설치에 주목된다. 貞觀 20年(646)은 遼 蓋 巖州 등의 民戶 7萬餘口를 內徙시켰던 다음해이고, 調露 元年(679)은 高藏의 反亂음모와 관련되어 遼東의 유민들이 다시 강제로 還徙된 2年 뒤의 일이다. 置州 안치되었다고 한다면 필경 「編戶」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內附民에 대한 일반적 조치라 하겠다. 黨項의 경우

(貞觀三年) 其後諸姓酋長相次率部落皆來內屬 請同編戶 太宗厚加撫慰 列其地爲岨奉巖遠四州 各拜其首領爲刺史³³⁾

라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降附民에 대한 조치는 置州 「編戶」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唐大詔令集』卷128 突厥 李思摩爲可汗詔에

擇肥饒之地 設州縣以處之……今歲月已積 年穀婁登 種粟增多畜收蕃息 綸絮無之 咸棄其毳裘 菽粟有余

라 하였다. 突厥의 阿史那思摩가 部衆을 거느리고 降附해 왔을 때의 조치이다. 州縣을 설치하여 安居시켜 農耕化에 힘쓰고 있다. 결국 이 경우에서도 「編戶」된 것으로 보아진다. 則天武后 때 甘·涼 2州로 內徙된 回紇 思結 渾 등 諸部에 대한 기록에는³⁴⁾ 口數마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들도 역시 「編戶」되었음이 분명하다. 좀 후대의 것이기는 하지만 「編戶」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史料는 『冊府元龜』 卷42 仁慈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開元五年(717) 七月 隴右節度郭知運大破吐蕃 獻俘於闕下 帝悉免而撫之 分配諸州爲編戶

라 한 것이 곧 그것이다.

唐이 降附民에 대한 조치로 置州編戶한 것은 이상의 예로 보아 틀림이 없겠으나 이들 戶는 「降戶」라 불렀던 예도 있다. 『舊唐書』 卷194 突厥조항에,

初咸亨中(670—673) 突厥諸部落來降附者 多處之豐勝靈夏朔代等六州 謂之降戶 默啜至是又索此降戶及單于都護府之地 兼請農器種子……遂盡驅六州降戶數千張 并種子四萬餘碩 農器三千事以與之

라 하고 있다. 萬歲通天(696) 契丹이 반하였을 때, 默啜은 唐을 도운 공으로 可汗에 冊封되었다. 이 때 默啜은 앞서 河套六州에 安置되었던 突厥의 「降戶」와 單于都護府 소관의 땅과 農

32) 여기서 말하는 麗州와 高麗州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의심이 간다.

33) 『舊唐書』 卷 198, 列傳 第148 黨項

34) 同上 卷 40, 地理 3 河西道條

器穀種 등을 요구하였다. 戶로 편제된 降附民을 「降戶」라 칭하고 있는데 유의해야 하겠다.

中國은 漢代 이래, 塞外 降附民에 대한 조치로 置州編戶해 왔다. 『晉書』卷97 匈奴傳에

前漢末 匈奴大亂 五單于爭立……携率部落入臣於漢 漢嘉其意 割并州北界以安之……於是匈奴五千餘落入居朔方諸郡……使宰牧之 與編戶大同 而不輸貢賦

라고 한 것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外民을 遷徙하여 編戶한 일은 비단 漢族만이 塞外民을 대상으로 취한 조치만은 아니다. 五胡十六國時代의 예를 보면 塞外潛入民이 中國民을 遷徙시켜 編戶하였던 예도 허다하다. 이들의 徙民措處는 經濟的 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졌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對敵하는 諸勢力을 파괴하고 前政權에 支配되었던 民戶를 직접 統理하는 이른바 強幹弱枝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關尾史郎氏의 연구에 의하면 五胡十六國時代와 北魏의 전기를 통하여 百數十件에 달하는 徙民措置가 있었다고 하여 이들 조치의 대부분이 強幹弱枝에 목적을 두었다고 지적하였다.³⁵⁾

唐代的 徙民措置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다음의 상소문은 그러한 이면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다. 河套地域으로 降附해 온 西突厥民이 다시 이탈해 가자, 그 대책을 上疏하는 王峻의 글 가운데

峻上疏曰……並分配淮南河南寬鄉安置 仍給程量 送至配所……若以北狄降者不可南中安置 則高麗俘虜置之沙漠之曲 西域編氓散在青徐之右 唯利是視 務安疆場 何獨降胡 不可移徙

라 있다. 塞外 降附民을 原居住地로부터 되도록 멀리 移置시켜, 다시는 反亂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 내용인데, 여기서 隴右道로 徙遷된 高句麗 유민의 예를 들고 있다.

우리는 흔히들 隴右諸州나 河套地域 등 西北邊境이라고 하면 荒涼沙磧한 곳으로만 알고 있다. 물론 地瘠함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不毛의 땅은 아니다. 武后時 涼州都督이던 郭元振의 傳에 보면, 그 당시의 涼州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又遣甘州刺史李漢通關屯田 盡水陸之利 稻收豐衍 舊涼州粟斛售數千 至是歲數登 至匹緡易數十斛 支廩十年 牛羊被野³⁶⁾

開元初 瓜州都督 張守珪의 傳에도

州地沙埧不可藝 常澇雪水漑田 是時 渠塌爲虜毀 材木無所出 守珪密禱于神 一昔水暴至 大木數千章塞流下 因取之修復堰防 耕者如舊³⁷⁾

35) 關尾史郎, 南涼政權と徙民政策, 『史學雜誌』第 89編, 第 1號, 1980, p. 43

36) 『新唐書』卷 122, 列傳 第 47 郭元振

37) 同上 卷 133 列傳 第 58 張守珪

이렇다고 하면 唐 時代의 隴右諸州는 沙塿不毛의 땅이라고 하기보다 사람들이 居住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지역이었음을 말해 준다.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資治通鑑』卷216 天寶 12載(753)의 기록을 보면 隴右富庶를 天下最高라 칭송하고 있다.³⁸⁾

이런 상황은 隴右諸州만은 아니다. 河套地域의 여러 州縣도 이와 다를바 없다. 『舊唐書』卷 93 唐休璟 列傳에

永淳中(682) 突厥圍豐州 都督崔智辯戰歿 朝議欲罷豐州 徙百姓于靈夏 休璟以爲不可 上書曰 豐州控河邊 賊 實爲襟帶 自秦漢已來 列爲郡縣 田疇良美 尤宜耕牧……貞觀之末 始募人以實之 西北一隅 方得寧謐 今若廢棄 則河傍之地復爲賊有 靈夏等州人不安業 非國家之利也 朝廷從其言 豐州復存

이라 있다. 豐州는 河套諸州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秦漢이래 郡縣으로 편제하여 개척되어 왔다. 突厥이 침범해 오자 州縣을 파하고 民戶를 靈夏兩州로 南遷시키고자 했을 때의 唐休璟의 반론내용이다. 民戶의 안치는 오래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內附降民을 編戶하였던 만큼 「計口受田」이 이루어져 田地에 대한 과세가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通典』六, 食貨, 賦稅 下에

外蕃之人投化者 復十年

이라 있어, 降附民에게는 復의 혜택을 주고 있음을 알겠다. 그 뿐만 아니라,

凡諸國蕃胡內附者 亦定爲九等 四等已上爲上戶 七等已上爲次戶 八等已下爲下戶 上戶丁稅銀錢十六 次戶五文 下戶免之³⁹⁾

라 하였다. 內附民戶를 九等分하여 上戶 次戶에게는 丁稅를 징수하였고 下戶에게는 免稅하고 있다. 이 과세도 徙置10年 뒤에 시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唐은 塞外 降附民을 內徙하여 안치하고 農業生産에 종사시키는 한편, 이들을 軍團으로 편성하여 敵對勢力과의 戰爭에 이용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農業生産과 軍團의 편제가 民族을 單位로 하여 구성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보아온 바와 같이 農業生産단위로는 突厥을 위한 置州編戶라든가 高句麗民을 대상으로 한 高麗州의 설정등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軍團의 구성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舊唐書』卷43 職官에 보면,

凡關內 有團結兵 秦成岷渭河蘭六州 有高麗羌兵

38) 『資治通鑑』卷 216, 天寶 12載條 「是時中國盛疆 自安遠門西盡唐境萬二千里 閭閻相望 桑麻翳野 天下稱富庶者無如 隴右 翰每遣使入奏 常乘白橐駝日馳五百里」

39) 『大唐六典』卷之三

40) 同上 卷之五 兵部

이라고 있다. 高句麗 羌族이 團結兵으로 편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兵團구성이 民族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좋은 예다. 원래 團結兵은 주로 北邊防備에만 충당되었던 것이 府兵制가 쇠퇴함에 따라 關內의 府州에도 설치되었다. 土着의 蕃漢民을 徵集하여 農閑期에 훈련시켰다가 유사시에는 자신들의 향토방위에 임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이와 같이 農民兵의 성격이 강하다. 『新唐書』卷43 地理志七 下에,

唐置羈縻諸州 皆傍塞外 或寓名於夷藩 而四夷之與中國通者甚衆 若將臣之所征討 敕使之出慰賜 宜有以記其所從出

이라 하고 있어 塞外 羈縻州民도 軍兵으로 언제든지 利用되었던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兩唐書 外國傳에서나 唐代 史書 가운데서 매거하기 힘들지 않다. 『新唐書』回紇傳에 보면 甘涼兩州에 內徙한 塞外民 가운데 壯騎단을 선발하여 赤水軍(涼州管下 諸軍中之最大者)산하에 예속시켜 이를 보좌케 하고 있다.⁴¹⁾ 『資治通鑑』에도 突厥의 阿史德樞賓과 延隋梯眞 등의 部族兵을 이용하여, 反亂을 일으켰던 奚部族을 토벌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⁴²⁾ 『通鑑考異』卷14 天寶 14年 12月條에,

(哥舒)翰爲副元帥 領河隴諸蕃部落奴刺……吐谷渾思結等十三部落 督蕃漢兵二十一萬八千人 鎮于潼關

이라 하였다. 安史의 亂이 일어나자 河 隴諸州에 內徙되었던 奴刺等 13部落民을 징발하여 漢兵과 함께 潼關을 鎮守시켰다. 이러한 사실들은 內徙民을 部族단위로 편제하여 필요에 따라 軍兵으로 이용했음을 말해 준다.

塞外民을 軍兵으로 많이 이용한 것은 이들이 弓馬를 능사로 하였던 까닭이라고 한다. 唐은 이미 高宗 말기에 오면 武를 경시하는 풍이 만연하여, 玄宗 때는 塞外異民이 군의 장으로 많이 기용된다. 그리하여 「諸道節度使 盡用胡人」이라고 할 만큼 이들이 중용되었다. 『舊唐書』卷199 高麗傳 附 泉獻誠傳에,

天授中(690) 則天嘗內出金銀寶物 令宰相及南北衙文武官內擇善射者五人共賭之 內史張光輔先讓獻誠爲第一 獻誠復讓右玉鈐衛大將軍薛吐摩支 摩支又讓獻誠 既而獻誠奏曰 陛下令備能射者五人 所得者多非漢官 臣恐自此已後 無漢官工射之名 伏望停寢此射 則天嘉而從之

라 있다. 武后時에 이미 漢將의 武技는 塞外民 軍將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內徙民에 대한 兵役 또는 潛入異族이 漢族에 부가한 兵務에 관한 기록은 일찍부터 나타난다. 『晉書』⁴³⁾ 『宋書』⁴⁴⁾ 『魏書』⁴⁵⁾ 등 기록에 보이는 「營戶」「雜營戶」가 곧 그것이다. 당시 國

41) 『新唐書』卷 217, 列傳 第 142 「回紇武后時 突厥默啞方瀝 取鐵勒故地 故回紇與契苾思結渾三部度磧 徙甘涼間 然唐常取其壯騎佐赤水軍云」

42) 『資治通鑑』卷 220, 顯慶 5年 5月條

43) 『晉書』卷 100, 誰縱傳

內 요소에 駐屯하던 鮮卑兵들의 軍營에 中國인들이 徙置되어 營內的 雜役に 종사하기도 하고 兵務에 동원되기도 하였다.⁴⁶⁾ 노예신분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물론 唐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戰爭포로가 奴隸로 되어 將卒에게 分賜된 경우는 허다하다. 白崖城 싸움에서 끝까지 抗戰하던 高句麗民이 포로가 되어 唐 將卒에게 分賜된 예라든가,⁴⁷⁾

初攻陷遼東城 其中抗拒王師 應沒爲奴婢者一萬四千八 並遣先集幽州者 將分賞將士⁴⁸⁾

라고 한 것 등은 곧 이를 말한다. 唐 突厥과의 戰爭에서도 마찬가지다. 『舊唐書』卷194 突厥傳에 薛延陀가 唐 太宗에게 보낸 答書가운데 戰爭포로를 奴婢로 삼아 賜與한 예도 찾아 볼 수 있다. 戰爭에서 얻은 포로를 官賤으로 삼는 예는 高宗時代까지가 비교적 많고 그 이후부터는 감소된다고 한다. 그리고 관천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강대국의 포로보다 弱小民의 그것이 많다고 하며, 東北·西北의 塞外民 보다 西南蠻民이 많았다고 한다.⁴⁹⁾

여하튼 傅樂成氏의 연구에 의하면⁵⁰⁾ 太宗 貞觀 4年(630)에서 玄宗 天寶 4年(745)까지의 115年間, 外族으로 唐에 俘虜가 되었거나 降附하여 中國에 內徙된 자만 해도 約 170萬名 이상이 된다고 한다. 『舊唐書』卷2 太宗本記에

是歲(貞觀3) 戶部奏言 中國人自塞外來歸及突厥前後內附 開四夷爲州縣者 男女一百二十餘萬口

라고 한 것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開元 28年(740)의 戶部計帳에⁵¹⁾ 의하면 「口 四千八百一十四萬三千六百九」라 기재되어 있다. 貞觀 3年이면 分明, 玄宗 때의 口數에는 미달되었을 것이니 당시 全體口數의 1/40 이상이 되는 셈이다. 邱添生氏는 『舊唐書』列傳에 載入된 塞外人의 수만해도 50餘名에 이른다고 했다.⁵²⁾ 이들이야말로 唐 帝國의 질서유지에 이용되어 왔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44) 『宋書』卷 77, 沈慶之傳

45) 『魏書』卷 4 世祖紀 太平眞君 5年 6月條

同書 卷 7 高祖紀 延興 元年 冬10月條

同上 延興 2年 3月條

同書 卷 94, 關官仇洛齊傳

同書 卷 110, 食貨志

46) 濱國重國, 唐王朝의 賤人制度, 東洋史研究會, 京都, 1966, p. 331.

47) 『新唐書』卷 220, 高麗傳 參考 『資治通鑑』卷 198, 貞觀 19年 6月條

48) 『舊唐書』卷 199, 高麗傳

49) 玉井是博, 支那社會經濟史研究, 唐時代の 外國奴, 岩波書店, 1943

50) 傅樂成, 唐代夷夏觀念之演變, 大陸雜誌 第 25卷 第 8期 p. 237

51) 『舊唐書』卷 38, 地理志 1

52) 邱添生, 唐朝起用外族人士的研究, 大陸雜誌 第38卷 第 4期 pp. 128~129.

Ⅳ. 結 言

唐의 降附 塞外民에 대한 대책은 太宗 때에 와서야 수립된다. 그 內容은 일부 降附民을 內徙하고 置州編戶하여 華化 農耕化 兵力化해 갔던 것이다. 服屬地의 異民族 통치에도 都護府 또는 都督府를 두어 置府州하여 그들의 酋長으로 하여금 통치케 하는 이른바 羈縻州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高句麗의 경우, 內徙民 조치에 있어서는 土着기반을 가진 反唐抵抗 세력을 골라 唐 內陸으로 移置하여 強幹弱枝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舊領土의 통치에 있어서는, 唐官이 파견되어 府州縣의 長을 감독하는 철저한 直接支配를 감행하였다.

降附 塞外民의 徙置에 대한 기록을 보면 東北 諸民族의 경우 奚 契丹 靺鞨의 降附民을 모두 營州附近으로 移置시킨 反面, 高句麗 유민에 대한 徙置는 江淮以南 山南 隴右 河套 등 內陸地帶로 內徙시키고 있다. 抗唐戰爭을 오래토록 해온 高句麗 유민을 되도록 멀리 故土에서 떨어진 內陸으로 分散移置시킴에 目的이 있었다.

원래 降附民에 대한 內徙는 強幹弱枝에 그 목적이 있었다. 置州編戶하였다고 하여 결코 經濟的 財政的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敵對하는 정복지의 豪族勢力을 파괴하기 위한 조치이며 降附民에 대한 직접적인 支配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唐은 對高句麗 政策이 실패하자 安東都護部를 遼東에 移置하고, 舊 高句麗王을 앞세운 遺民 회유책을 강구하였다. 舊 國王 高藏에게는 爵位나 職官을 주는 한편 앞서 內徙되었던 豪民들을 다시 遼東으로 還置시켰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종전의 「安東官」을 앞세운 강건한 통치를 청산하고 보다 완화된 羈縻통치를 수행할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高句麗 유민들의 反唐행위를 무마하고 親唐的 기미주로 再建하는 한편 新羅 靺鞨 등의 진출을 막을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高句麗 유민들의 줄기찬 抗唐투쟁이 계속되고 東北方 情勢의 변동으로 唐의 정책은 실패한다. 그리고 高句麗 유민들도 다시 中國 內陸으로 遷徙되어 置州編戶되었다.

唐은 內附降民을 編戶하고 定着시켜 農耕民으로 삼았으니 計口受田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稅·役이 부가되었다. 降附民의 民戶를 9等分하여 上戶 次戶로 부터는 徵稅하였고 下戶에 대해서는 免稅하였다. 그러나 內附降民에게는 復十年의 혜택이 주어졌다.

唐은 內徙 降附民을 軍團으로 편성하여 敵對勢力과의 전쟁에 이용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農業生産과 軍團의 편제가 民族을 단위로 하여 구성되었다. 塞外民을 軍兵으로 많이 이용한 것은 이들이 弓馬를 능사로 하였던 까닭이다. 內徙民을 軍兵으로 동원한 기록은 일찍 부터 나타난다. 五胡十國時代나 南北朝時代의 營戶·雜營戶 등이 곧 그것이다.

降附民과 戰爭포로는 구분되지마는 唐代의 포로는 奴隸가 되어 將兵에게 分賜되었다. 戰爭

포로를 官賤으로 한 예는 高宗時代까지가 비교적 많고 그 이후는 감소된다. 그리고 東北·西北의 塞外民 보다 西南蠻民이 많다.

唐 太宗 貞觀 4年(630)에서 玄宗 天寶 4載(745)까지 115年間, 外族으로 唐에 俘虜가 되었거나 降附해 온 塞外民만 해도 約 170萬名이나 된다. 이들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自己의 能力에 의하여 中央政界나 邊防의 將으로 기용되어 唐 帝國의 질서유지에 이용되었다. 限界性은 있으나 異民族에 대한 唐의 開放政策의 結果에서 비롯된 것이다.

Early T'ang dynasty's Policies about the Foreigners.

—especially on the deportation policy about the captured Koguryo—

Early T'ang dynasty's Policies about the Foreigners. especially on the deportation policy about the captured Koguryo

T'ang's policy on the captured foreign people was set by the second Emperor 太宗. It implies a aspects. One is the deporting of the some of captives into the mainland and making them as farmers and soldiers, which was supposed to transform them as a part of Chinese people. And the other is making new political units 府, 州, 縣都督府, and 都護府, in order to control the occupied lands and their peoples. New political units were managed by the native leaders. We call it as 羈縻州, policy.

But, to deal 高句麗, T'ang followed very strong control policy. T'ang strictly screened and deported the national leaders of 高句麗 into the inland, who were still potential rebellions power against T'ang. And T'ang sent its bureaucrats directly to 高句麗 in order to inspect and manipulate the 高句麗 leaders of 府, 州, and 縣, which were newly formed there.

Records about the T'ang's deporting policy on the captured foreigners show that north-east people such as 奚, 契丹, and 靺鞨 were deported to around 營州 area. But the captured 高句麗 was deported to the far-inland, which implies the southern, northern and north-west area.

T'ang classified the captives into 9 classes, same as its own tax units. T'ang taxed the and those who were deported to the farinland area, also could get along without tax for 10 years.

T'ang organized the inland captives into agricultural production unit and legion army unit according to their own nation. We can see it 高麗州 and 高麗圖結兵. So each nation could keep on its own tradition very pretty much unimpaired. This means that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foreign captives into Chinese took very long time.